

5명 모여 식사했다가... 또 집단감염

6월들어 이틀새 26명 코로나 확진... 지인모임發 확산 도 "미확인 감염 많아... 최근 방역 의식 열어져 걱정"

제주지역에서 또 다른 집단 감염 사태가 터졌다. 특히 방역수칙 위반이 새로운 집단감염 사태를 키운 것으로 나타나면서 열어진 방역 의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 14명(1043~1056번)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데 이어, 2일 오후 5시 기준 12명(1057~1068번)이 확진됐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1068명으로 늘었다. 또 6월 들어 체 이들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26명이나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틀 사이 확진 판정을 받은 26명 중 7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5명은 타 지역 감염자의 접촉자, 1명은 수도권 방문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3명은 감염 경로가 드러나지 않은 확진자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자 스스로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다.

특히 지인 모임을 매개로 한 새로운 집단감염이 발생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식사 모임 참석자부터 시작 한 감염이 동료와 그 가족에게 퍼져 현재까지 총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집단 감염 경로를 보면 지난달 30일 1026번이 첫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1026번과 함께 식사를 한 1037번과 1038번, 1043번, 1045번

등 4명이 잇따라 감염됐다. 이후 식사 참석자와 접촉한 직장 동료와 가족 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역학조사 결과 이들 5명은 친구 사이로 지난달 26일 제주도 에월읍 노라바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방역당국은 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며 대화를 하는 도중 비말이 많이 발생해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했다. 또 도방역당국은 이들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기존 연쇄 감염 집단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2일 양성 판정을 받은 1063번은 제주도 지인 모임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제주도 지인 모임을 연결고리로 한 확진자 수는 총 10명으로 늘었

다. 제주도 지인 모임 집단 감염은 광주·전남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도민이 코로나19에 걸린 뒤 추가 전파로 이어진 사례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청 직강어린이집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돼 공직 사회가 추가 전파로 이어지지 않을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현재 해당 어린이집은 원아들을 모두 귀가시킨 상태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1일에도 지인이나 가족간의 접촉으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를 확인했다"면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 지역 사회의 전파 확산을 최대한 저지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식사 자리는 최대한 피하고,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상민기자 hasm@halla.com

유·초 1~2학년 교사 88% "백신 맞겠다"

전교조 설문조사 결과 "아이들 안전위해 접종"

오는 7일부터 도내 30세 이상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는 가운데 수업 공백 및 교사의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촉구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제주지부는 2일 도내 유치원과 초·1·2학년 교사 대상 백신 접종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교사의 접종이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교사들은 백신 접종을 선택하고 있다"며 접종 후 회복될 때까지 공가 및 병가 사용의 적극적인 관장과 수업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

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이뤄진 설문조사에 357명의 교사(유치원 100명, 초 1 139명, 초2 118명)가 참여했으며 이 중 87.7%가 백신 접종 의향을 밝혔다.

백신 접종을 결정한 이유(복수 선택)는 '교사로서 의무감(72.1%)', '집단면역의 필요성(52.7%)', '확진자 증가로 인한 불안(22.5%)', '사회적 비난(13.7%)' 순으로 나타났다.

접종하지 않겠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미접종 이유(복수 선택)로 '부작용(82.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병가 사용이 보장되지 않는 점(15.2%)'과 '대체 강사 부족(15.2%)' 등을 이유로 들었다. 오은지기자

유흥업주에 뇌물 받은 경찰간부 입건

소속 경찰서 직위해제 조치

현직 경찰이 유흥주점 업주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은 도내 모 경찰서 소속 A경위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와 올해 사이 제주도 소재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날 A경위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뤄졌지만, 법원에서는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A경위가 소속된 경찰서는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A경위의 직위를 해제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경찰의 연도별 징계 현황을 보면 2017년 20건, 2018년 4건, 2019년 5건, 지난해 4건 등이다.

유형별로는 직무태만 11건, 품위 손상 등 9건, 성비위 5건, 음주운전 5건 등의 순이었다. 계급별로는 경사가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위 14명, 경감 8명 등이다. 송은범기자



제주서 즐기는 낚시체험 2일 제주도 한림읍 수원리 인근 바닷가를 찾은 관광객들이 제주전통 대나무 낚시체험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상습절도 50대 징역 2년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판사는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제주시에 거주인인 박씨를 상대로 횡령, 공병, 가방 등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해 1월 9일 오후 4시39분쯤 제주도 소재 주차장 LPG 저장 탱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을 붙인 스토브를 가져다 놓은 혐의도 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제주경찰 보이스포싱 범죄와 전쟁 한 달

44명 검거... 2억여원 환수 조치

제주경찰이 보이스포싱과 전쟁을 선포한 한 달여 만에 피의자 44명을 검거했다.

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포싱 집중단속 기간인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보이스포싱 피의자 4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

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일으킨 피해는 약 5억원에 달했으며, 경찰은 이 중 2억4000만원을 압수한 상황이다.

최근 구속된 4명은 모두 금융기관 혹은 은행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28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편취한 현금 수거책이었다. 이들 대

부분은 인터넷 등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나이는 20~30대였다.

이에 따라 보이스포싱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올해(지난달 27일 기준) 들어 8명이 보이스포싱 피해

를 예방하거나 검거에 기여, 총 530만원의 보상을 받았는데, 이는 2019년 3건·70만원, 2020년 3건·90만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압수된 2억 4000만원 중 5900만원은 피해자에게 환수했고, 나머지 금액도 조속히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며 "단속 기간이 끝나는 오는 30일까지 경찰 인력 등을 총동원해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범죄수익금까지 끝까지 추적해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확충 없는 공공의료 계획안 폐기하라"

의료영리화저지본부 기자회견

의료 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와 좋은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준)는 2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병원 확충 의지 없는 공공의료 기본계획안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 사진

이들은 "정부는 2일 보건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2021~2025년)'을 심의·발표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계획안은 코로나19 속 공공의료 부족으로 한국사회가 겪는 위기와 비극에 비해 극히 부족한 수



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의 계획안이 다 지켜진다고 해도 현재 8.9%인 공공병상은 5년 후 9.6%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17개 시·도 중 공공병원이 없거나 한 개에 불과한 울산, 광주, 대구, 인천에 의료원을 설립하고, 부산 침례병원과 제주 영리병원 부지를 매입해 공공병원을 지어야 한다"며 공공병상 확대를 요구했다. 송은범기자

노인학대신고 24시간 상담전화

1577-1389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www.sgpnoin.org
운영법인 : (사)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

만감류 매달기! 다인 굴고리

굴고리, 안파고정판, 안파밴드, 굴고리 작업세트

미리 걸어두고 편하게 매달자! 굴고리 사용 방법

1.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이후엔 던지기 생략가능
2. 높은 효율! 굴고리 한 개에 15개 이상 매달기 가능
3. 미리 작업! 매달기직전 시즌 전에 미리 던져 둘 수 있음
4. 편리한 수거! 수확 후 유인끈을 간단히 수거 가능

'안파고'드는 유인줄 '안파고'

- + 굴, 단감, 대추, 사과, 체리, 복숭아, 자두, 배, 호두 등 모든 과수나무의 처진 가지, 늘어진 가지 해결!
- + 원터치&조간편 길이 조절.
- + 가지에 걸고 고정판에 끼우면 작업 끝.

안파고 소 110호(1m), 115호(1.5m)
안파고 대 210호(1m), 215호(1.5m)

까치, 까마귀, 새 쫓을 때! - 다인독수리연

4m줄대 세트 (대형연, 소형연)
7m줄대 세트 (대형연)
질긴 천, 강한 부품
비슷해도 다르다!

굴고리, 유인줄, 유인줄, 이클립 기타 영농자재

DA IN 다인산업(주) 경북 예천군 보문면 신단길 14-28
상담 및 문의 054-652-3725, www.dainfine.com

감귤 신상품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모듬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윈터프린스, 제라몬(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리향, 아미انس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2년생 이상 100% 이상한 모듬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증묘

010-2691-1883

모듬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윈터프린스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 ● 레몬
- 탐라향 5년생 (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유라(1~5년생)
- 천전(가와대) 조생

※ 신상품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